

2월 주요 안전사고 예보

= 대설피해 및 해빙기 빙상사고 주의보 =

- 2월은 겨울철 중 자연재난 발생건수가 비교적 적은 달이나,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않은 대설피해가 발생되므로 현장출동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.

< 주요 대설피해 사례 >

- ① '11.2.11.~2.14. 강원 및 경북 동해안지방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, 축사파손 등 360억원의 시설피해뿐만 아니라 국도 7호선 삼척~경북도계구간에 차량 169대, 380여명이 22시간동안 고립되는 피해 발생
- ② '14.2.6.~2.14. 강원지역 9일간 강설로 주택 20동, 비닐하우스 20ha, 축사 195동 및 공공시설 등 122억원의 피해와 19세대 32명의 이재민 발생
※ 최심적설(cm) : 미시령 194, 강릉 117.5, 동해 86, 속초 83.5

- 해빙기 빙상사고로 사망자 등 발생확률이 높으며, 봄 방학을 전후하여 초등학생·청소년들의 빙상놀이와 가족단위 여가생활 및 낚시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사고발생의 개연성 또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- 해빙기에는 얼음판이 많이 약해져 있어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의 얼음낚시를 피해야 하며, 어린이들의 빙상놀이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 항상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함.

□ 대설 대비 행동요령

- 내 집,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기
-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
- 차량, 대문,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은 제거
-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
-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
- 출·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(기차, 버스) 수단을 이용
-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등으로 보호
 - ※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, 소나무 가지가 부러짐
-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기.



□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

- 지반 침하로 인한 굴곡 등 이상 징후 있는지 주의
- 절개지, 낙석 위험 지역 점검
- 절개지에 접한 건물 내·외벽에 균열은 없는지 점검
-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점검
- 노후 건축물, 축대, 옹벽 주변 점검
- 주변 건축물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



□ 빙상사고 인명구조 요령

- 얼음은 육안으로 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으로 항상 주의
-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얼음 두께는 10cm이상인지 확인
- 해빙기 얼음위에서의 낚시, 빙상놀이 등을 하지 않기
-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, 119신고하기